

박물관 문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2026 봄 · 여름호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ulture
Spring / Summer 2026

전시 소식 I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전시 소식 II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
《포袍, 예를 갖추다》

교육·신간·아트샵 소식

소장품 연계 체험 교육프로그램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포袍, 예를 갖추다》 전시 도록 출간
2026 봄 · 여름 아트샵 신상품 출시

기증소식 I

장용숙 · 이숙례 · 최연택

기증소식 II

김성태 · 조혜진 · 김종선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관장 장남원)은 본교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이화역사관과 협력하여 특별전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5월 11일(월) ~ 12월 31일(목))을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진眞, 선善, 미美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에 대한 탐구, 이웃과 사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품격과 감성을 실천하며 여성교육과 문화 성장을 이끌어 온 이화여자대학교 140년의 여정과 미래의 비전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크게 ‘이화梨花’와 ‘진선미眞善美’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화’ 공간은 AI 기술로 재현된 14인 스승들의 영상으로 시작된다. 영상코너를 돌면 박물관 소장 아펜젤러 교장의 책상과 의자, 졸업증서, 메이퀸관 등과 이화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복과 체육복, 김옥길 총장의 코트, 사진 자료 등이 전시되어 이화의 발자취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58년부터 2002년까지 수많은 이화인들이 오갔던 ‘옛 정문과 다리’를 전시장에 구현하여 대학의 역사와 추억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AI 기술을 이용해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해석한 이화 140년의 영상과 이대 학보 출력물, 이화의 복식과 메이퀸 관 등을 착용해 보는 AI 복식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하여 이화의 역사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선미’의 정신을 보여주는 ‘진眞’ 공간에서는 이화가 소장한 의미 있는 기록문화 유산들을 선보인다. 이화여대도서관 소장 『상호도감의궤上號都監儀軌』(보물), 박물관 소장 『기사첩善社契帖』(보물, 영인본), <고구려 평양성 축성 기록 글자>(보물), 이화역사관 소장 사료 원본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사첩』은 한글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인본으로 화첩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음미할 수 있도록 전면을 선보이며, 원본은 상설전시관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선善’ 공간에서는 이화를 사랑하는 후원자들이 기증한 수준 높은 유물들을 통해 선한 나눔의 가치를 전한다. 비녀, 노리개 등 상류층의 장신구, 명성황후 한글 편지 등 귀한 유물들이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미美’ 공간에서는 여성으로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 첫발을 내딛던 순간과 조사·연구 활동, 국보와 보물들,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특별전과 대표 유물, 출간물 등을 전시하여 이화의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과 저력을 보여준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140년간 여성 교육의 요람이자 문화의 보루 역할을 해온 이화여자대학교의 축적된 활동과 유산을 감상하는 동시에, 과거의 기억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포袍, 예를 갖추다

담양복식미술관은 이화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박물관 지하 1층 담양복식미술관에서 《포袍, 예를 갖추다》특별전을 개최한다. 포袍는 가장 겉에 입는 옷으로 고대부터 격식을 갖추기 위해 기본 옷차림 위에 덧입었다. 이후 의례가 세분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의례 복식이 제정되었고, 예복의 위상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포를 덧입어 위엄을 드러냈다. 복식은 예禮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조선의 선비들은 일상에서도 항상 포를 착용하여 예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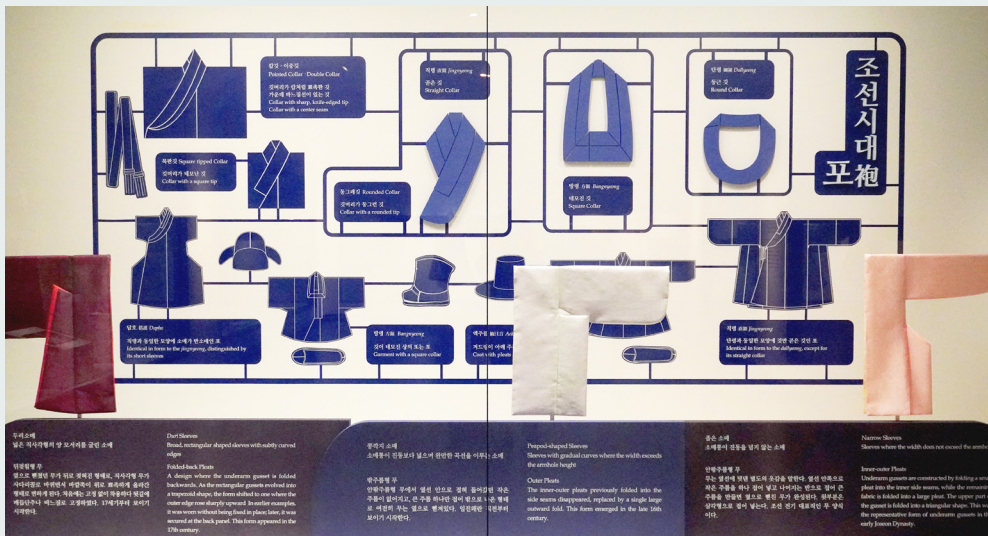


<단령團領> 조선 19세기, 견
길이. 124cm, 화장. 92cm

형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포는 오늘날의 코트Coat와 유사하지만, 착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레이어드 룩 Layered look처럼 여러 개의 포를 겹쳐 입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포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덧입어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각각의 포를 이르는 명칭은 형태적 특징을 함축하기도 하는데, 단령團領·직령直領·방령方領은 옷깃의 모양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고, 창외窓外는 트임이 있는 옷이라는 의미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유롭고 풍성한 실루엣에 낮은 허리선이 유행했다면, 후기로 가면서 품은 줄어들고 허리선은 점차 올라갔다. 옆선 밖으로 넓게 뻗은 무는 시간이 흐르면서 뒷길에 고정되었고, 길고 좁은 소매는 말기가 되면 길이는 짧아지는 대신 통이 넓은 두리소매가 되었다.



오백 년간 이어진 긴 시간 동안 조복朝服·제복祭服처럼 큰 변화 없이 이어진 것도 있지만, 단령이나 철릭처럼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 조선시대를 관통한 옷도 있다. 액주름이나 방령은 임진왜란 전후로 사라졌으며, 새롭게 등장한 중치막, 창 등의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포의 변화 양상을 통해 유행의 흐름을 그려보며 복식을 통해 예를 갖추었던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나만의 조선 백자 컬렉션 만들기



나만의 금박 장식함 만들기



박물관 《소장품》 전시 연계 체험교육프로그램 〈나만의 조선 백자 컬렉션 만들기〉, 〈나만의 금박 장식 함 만들기〉

박물관은 상설전시와 연계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맞춰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다.

3월과 4월에는 〈나만의 조선 백자 컬렉션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박물관 소장품인 〈백자 철화 포도문 호〉와 〈백자 청화 매조죽문 호〉 등 조선시대 백자를 감상하며 백자의 형태와 문양, 표현 기법을 살펴보았다. 이어 백자 미니어처에 전사지를 활용해 문양을 입혀 나만의 조선 백자 미니어처를 제작해 보며, 전통 도자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5월에는 〈나만의 금박 장식함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박물관 소장품인 〈철제 은입사 십장생문 담배함〉을 비롯한 다양한 은입사 금속 유물을 감상하며 유물의 형태와 문양, 표현 기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무 함에 십장생문, 연화모란문 등 전통 문양을 금박으로 장식해 나만의 장식함을 만들어 보며 은입사 기법과 전통 문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진, 선, 미,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포袍, 예를 갖추다》 전시도록 출간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 《진, 선, 미,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와 《포袍, 예를 갖추다》의 전시 도록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진·선·미,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전시 도록은 이화가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귀중한 기록 문화유산, 이화 가족과 후원자들이 기증한 유물, 그리고 한국 문화 발전을 이끌어 온 박물관의 역할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화학당에서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지는 140년의 역사를 담은 학교 역사 사료를 함께 소개하여, 이화가 걸어온 발자취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포袍, 예를 갖추다》의 전시 도록은 예와 격에 맞춰 착용했던 다양한 포 80여 점을 수록하였다. 의례복으로 착용된 조복朝服과 제복祭服부터 1884년 갑신 의제개혁 이후 만민이 평등하게 착용한 두루마기까지, 오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된 포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유물을 선별하여 시대별 특징을 한 권의 책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소상화와 풍속화, 근대기 사진을 함께 실어 완성된 착장의 우아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6 봄·여름 아트샵 신상품 출시

아트샵에서는 2026년 봄·여름 시즌을 맞아 새로운 상품 3종을 선보였다.

먼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여, 이화를 모티브로 한 안경수건 8종과 스티커북을 출시했다. 이화의 상징성과 아름다움을 담아 일상 속에서 이화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가볍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수 소재의 스티치 미니백 2종도 함께 출시했다.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하기에 적합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재질로 가벼운 외출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방수 스티치 미니백
26×21cm



안경수건
17×15cm



스티커북
22×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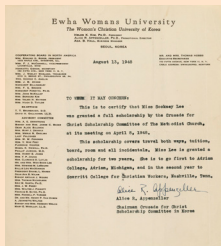
5월 여왕(May Queen) 진주관
1961년, 높이 19cm, 부분 복원

1965년부터 2002년 정년퇴직까지 본교 학생처 교직원으로 37년 넘게 근무하신 장용숙(본교 법학과 65년 졸) 선생님은 1978년 메이퀸 폐지 이후 소중히 보관해 온 진주관을 기증했다. 이화의 정신인 ‘진·선·미’를 대표하는 메이퀸 대관식에서 사용되었던 이 관은 김활란 박사의 진주 장신구를 모태로 제작된 창립 75주년 왕관이다. 기증 자리에 함께한 자녀 채인희(본교 법학과 97년 졸) 동문은 이화의 정신이 담긴 유물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에 기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증품은 이화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시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에서 진주관(61년), 은도금관(64년), 순금관(66년)으로 이어지는 메이퀸 왕관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실물 자료로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故 이숙례 명예교수님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과 부속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헌신하신 분이다. 유족 이상희(본교 동양학과 80년 졸) 동문은 선생님의 이화여전 학생증, 아펜젤러 당장의 추천서를 받아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십자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남긴 아이오와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Iowa) 유학 시절의 자료, 박사학위 졸업가운 등 교사校史 자료 총 9건 13점을 회고 추모문집 『사랑과 그리움, 파랑새의 추억』과 함께 기증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한국 초등교육의 기틀을 다진 선생님의 교사자료는 현재 이화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시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에서 이화의 역사와 세계로 뻗어 나간 본교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선보이고 있다.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증
1945년, 문과



십자군 장학생
Alice R. Appenzeller 추천서
1948년



십자군 동창회 책자
1972년



학교행사에서 박사
학위가운 착용 하신 사진

최연택 선생님은 2025년도 행남자기 자료 기증에 이어 덕수궁 석조전 만찬장 복원을 위해 재현된 식기세트 총 5건 18 점을 기증했다. 기증품은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황금빛 이화문 문장과 테두리 금선이 선명한 서양식 디너세트로, 2014년 완료된 복원사업에서 행남자기의 기술과 전문가 고증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재현 식기 세트는 이화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시 《眞, 善, 美, 이화 140년 : 기억에서 미래로》 도록에 게재되어 대한제국의 이화문양을 소개하는 자료로 소개되고 있다.



석조전 만찬장 대한제국 이화문 백자 재현 식기
행남자기, 높이 14.5cm, 지름 23.2-30.5cm

기증소식 II

김성태 선생님은 ‘중국도자 동호회’를 계기로 본교 박물관과 인연을 맺고 다수의 유물을 기증해 온 분이다. 이번 이화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여 오래전부터 품어온 기증의 뜻을 전하며,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청자투각 고리문 돈>과 유사한 기법과 기형으로 제작된 중국 명대 용천요 <청자투각 보상당초문 돈>을 비롯한 <청화백자 매병>, 원대 <청자음각 고족완>, <청백유 음각 연화문 고족배>, <추부백자 인화 양각문 발>, <추부백자 인화 양각문 접시> 등 총 6건 6점의 중국 도자유물을 기증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도자 연구자료를 성실히 축적해 온 박물관에서 이번 기증품이 전시 및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전하였다. 현재 이화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시 《眞,善,美,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에서 기증품의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청백유 음각 연화문 고족배
경덕진요, 원대
높이 10cm



청자음각 고족완
용천요, 원대
높이 13cm



청화백자 매병
명대 明代
높이 25.5cm



청자투각 보상당초문 돈
용천요, 명대
높이 3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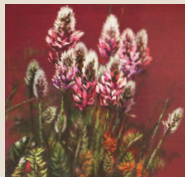
조혜진(본교 동양학과 76년 졸) 동문은 선대와 모친 김혜경 섬유예술학과 명예교수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중히 간직해 오던 유물 및 작품 총 59건 120점을 기증했다. 기증품은 고려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도자 유물, 이대 도예연구소 제작 소품들, 경대, 나전흑칠 소반 등의 목공소품, 자수병풍, 복식, 김용진, 이준 등이 그린 근대기 회화, 김혜경 자수 작품과 광계정의 왕골 공예품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다. 이 중 자수 작품으로 꾸민 4폭의 <화조도 자수병풍>에는 모란, 매화, 석류 등 계절을 대표하는 꽃과 나무, 그리고 원앙과 꿩 등의 새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묘사되어 있다. 또한 <나전주흑칠 원반>은 궁중용 소반으로, 둥근 천판의 뒷면에 “계유 영춘헌 고간”이라는 음각 명문이 있어 1873년 창경궁 내에 위치한 영춘헌迎春軒 고간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 소반은 이화창립 140주년 기념 특별전시 《眞,善,美, 이화 140년: 기억에서 미래로》에 ‘선물: 수집과 나눔’에 전시 중이다.



자수 화조도 4폭 병풍
각 31.7×130.5cm



김용진 작 <목죽도>
31×128.5cm



김혜경 작 <想夏>
1974년, 36×34cm



나전주흑칠 호족 원반
1873년, 높이 30cm

김종선(본교 교육학과 61년 졸) 동문은 오랫동안 간직해 온 복식 유물 총 4건 4점을 기증했다. 1954년생 동생의 돌 때 어머니가 손수 지은 색동 두루마기는 삶과 무에 다른 색을 쓰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솔기 사이에 다른 색 옷감을 가늘게 끼워 넣는 선치기 기법을 사용하였다. 1963년 혼수로 장만한 바지와 고쟁이는 복식이 서구화된 이후에도 혼수로 전통 복식을 마련하던 문화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색동 두루마기
길이 73cm



바지
길이 100cm